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연주	학번	■■■■■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5. 1. 17(토) ~ 2. 13(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된 곳은 Times-SLC 수빅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옛날 미 해군의 병원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라 그런지, 생각한 것 보다 쾌적했습니다. 학원 밖의 전반 적인 분위기는 조용하고, 다른 놀 거리가 없어 공부하는 데에 있어 나쁘지 않은 입지 조건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타 지역보다 안전한 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다음 번 참가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업	수업 내용 자체는 문법이나, 작문을 위주로 하지는 않고, specking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매 시간 다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group수업과 1:1수업이 번갈아 가면서 있어, 첫 주에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고, 이런 수업을 처음 장시간 하다 보니, 힘들어 수업의 참여도가 과연 높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매 시간 다른 선생님과, 다른 과목을 배우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도 빨리 가고, 조금씩 영어로 말하는 시간이 길어짐이 느껴졌습니다. 학원에서 주는 책 말고도,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activities (News만들기, Music video 만들기, Advertisement 만들기 등...)이나, 제가 준비해간 질문들을 함께 풀어주시는 등 학생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수업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더불어 선생님들의 나이가 어려 걱정했던 부분도, 오랜 기간 한국인 학생을 가르쳐온 선생님들답게 잘 타이르고 어우르는 부분이 인상 적이었습니다.

Activity	기간이 짧은 관계로 많은 activities는 못 했습니다. 바다에 놀러가거나, 친구들과끼리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바다는 많이 가는 것 같으니, 수영복이나, 큰 타올 정도는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원 앞에 Tree top이라고 하는 수빅 내에서 유명한 관광코스도 있어 적은 금액으로 이용해 볼수 있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의 기후는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조금 쌀쌀한 정도의 날씨입니다. 다음에 가는 학생들을 긴바지와, 긴팔을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수빅 현지는 아주 안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저희가 있을 동안 타 지역에 나쁜 일이 있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있던 지역에서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은 것을 미루어봐 안전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숙소와 학원이 같이 있어, 통학하기가 아주 수월 했습니다. 또한, 다른 유흥거리가 있는 시내와도 떨어져 있어,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식단은 한식 위주라, 거부감은 없었지만, down town으로, 많이 외식을 나갔었기 때문에 주말 점심이나, 저녁은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교통	학교와 기숙사가 같은 건물 안에 있어 통학은 나쁘지 않았지만, 수빅 내에 있는 버스와 같은 FB라는 운송수단과 택시로 시내와 학원을 오갔고, 시내에서는 지프니라는 버스나, 택시를 많이 이용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쇼핑물이 시내에 몰려있어서, 지프니나, 다른 운송수단들보다 택시를 이용해 오고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350,000: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	734,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 공항세		
외식비, 여흥비		약29만원
기념품		약6만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겨울 방학동안 갈 거라면, 꼭 얇은 긴팔과 긴바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디카보다는 넷북을 가져가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또, 가서 신발을 사는 것 보다, 한국에서 사서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지 신발은 싸지만, 생각보다 좋지도, 예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 맘에 드는 신발 사서, 신고 다니는 게 맘도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음식을 가져간다고 해서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한인 마트가 있으니 너무 욕심내서 한국 음식 가져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학원 선생님들께 줄 간단한 기념품 하나씩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솔직히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다인 학원 시스템이라,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는 없었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불고, 의욕도 불어넣어 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선생님들과의 교류로 말이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것은 아니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영어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고,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나누며, 저의 다른 면모도 보고, 제가 그동안 알고 지내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의 한국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어가 엄청나게 늘었던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더 제가 보는 시야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한국의 양면성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시각으로 맞춰봤을 때의 흥미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는 연수라고 해서, 영어의 발음이나, 안전상태 등으로 부모님께나, 다른 분들이 걱정을 조금 하셨지만, 생각보다 쾌적한 환경과, 선생님들의 교육수준이 높아 깜짝 놀랐습니다.

4주 프로그램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마지막 주에 너무 빠르게 가는 시간이 야속해져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제가 꿈꾸고 있는 해외취업이나, 외국회사 입사에 대한 열망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Toeic speaking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배웠던 것과 더불어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시험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한 가지 길뿐만 아니라, 다른 더 많은 길을 볼 수 있어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공항에서의 첫 만남</p>	<p>필리핀 고아원 봉사활동</p>
	
<p>필리핀 역사수업 후, UP마닐라 교수님과 함께</p>	<p>After school, Pool party with teachers</p>
	
<p>첫 번째로 함께 했던 Activity(모두와 찍은 사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p>	<p>Graduation</p>